

## 에너지 · 자원개발연구소 · 지오제니컨설팅, '맞손'

지오제니컨설팅, 전북대에 인재양성 위한 10억 원 상당 자원개발 소프트웨어 제공

전북대학교 부설 에너지 · 자원개발 연구소소장 송영수(주)지오제니컨설팅과 산학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주)지오제니컨설팅은 국내 유일의 자원개발 전주기 컨설팅 및 광산설계 전문기업으로, 국내외의 프로젝트에 대한 광산운영과 관련된 컨설팅을 수행

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이 기업은 10억 원 상당의 자원개발전문가 소프트웨어를 에너지 · 자원개발연구소와 지원 · 에너지공학과에 제공해 학생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또한 해외자원개발 전문인력양성과 실습교육 지원, 해외자원개발 기술교

류 협력을 통해 상호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송영수 소장은 "지오제니컨설팅의 지원으로 우리 학생들의 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양 기관이 갖고 있는 기술이나 정보 등 장점을 활용해 전문인력 양성뿐 아니라 서로가 원-원하는 계기가 되길 바

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대 에너지자원개발연구소는 2017년 에너지 · 자원개발 분야 산 · 학관 협력강화 공동연구체계 구축, 혜의 자원개발 관련기업 및 대학 연구소와의 국제협력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개소됐다. 지금까지 한국기스 공사, (주)홈랜드솔루션 등 많은 기업 및 기관과 협력으로 운영되고 있다.

/장은성기자

도교육청, 내년 1월 1일자  
지방공무원 정기인사 발표

승진 153 · 전보 364명  
신규임용 83명 등총 737명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2022년 1월 1일자 정기인사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4급 2명, 5급 16명 등 승진 153명, 전보 364명, 신규임용 83명, 정년(명예)퇴직 69명 등 총 737명이다.

6급 이하 교육행정직 공무원 전보는 개인별 전보희망을 반영하는 전보희망제에 따라 173명을 본인 희망 지역에 배치했으며, 신규임용 공무원은 신규임용후보자 명부 순위에 따라 결원기관 및 생활근거지 등을 고려해 발령했다.

이번 정기인사는 공로연수 등 상위 직급 결원에 따른 승진 임용으로, 사기를 진작시키고 신설 기관 및 학교의 인력 충원 및 순환 전보를 위해 전보서열부와 업무수행 능력을 고려한 현장 중심의 적임자를 배치하는데 중점을 뒀다.

특히, 향후 전북교육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다변하는 교육현장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 가능한 역량있는 교육행정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6급 핵심인재 양성과정을 개설해 교육행정 12명을 교육과면 임용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력과 업무수행 능력을 고려한 적재적소 배치를 통해 효율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장기 근속자 순환 전보로 조직 운영의 힘을 불어넣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http://www.jjmaeil.com)

## "전라중 부지에 미래교육 캠퍼스 조성"

서거석 전 총장, 전주교육지원청 청사 이전 대신 '미래교육 플랫폼' 구축 제안  
국토부 '전주 덕진권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계 시너지효과 기대



전라중학교 부지에 전주교육지원청 청사를 신축 이전한다는 도교육청 계획에 대해 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이 학생 교육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며 저항장을 걸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 출마예정자는 (전 전북대 총장)는 전주 에코시티로의 이전이 확정된 전라중학교 부지에 행정기관이 아닌 학생 중심의 '미래교육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거석 출마예정자는 22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미래교육체계로의 전환을 요구해왔지만 안타깝게도 전북교육에는 '미래'가 빠져 있다"면서 "전북에 미래교육의 거점이 될 '(가칭)미래교육캠퍼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인공지능과 로봇, 기후변화, 탄소중립 등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각되면서 미래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교육 대전환이 요구되고 고교학점제 등 미래교육체계로의 신속한 전환을 촉구하고 있는데도 전북의 경우 미래를 대비한 교육과정 편성과 교육공간 구축도 뒤쳐져 있다고 언급했다.

서거석 출마예정자는 "우리 학생들이 사회에 나갈 2030년 이후를 내다보며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핵심역량을 체계적으로 길러줘야 한다"면서 "미래교육캠퍼스'는 미래교육, 학습, 체험, 연구, 교류의 허브이자 플랫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미래교육캠퍼스에는 AR(증강현실), VR(가상현실), 메타버스, 인공지능로봇체험관이 들어서고, 대학과 연계한 다양한 커리큘럼의 미래캠프를 상설 진행해 전북지역 학생들의 공유캠퍼스가 될 것"이며 "국제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체계를 갖추고 난민문제, 다종언어, 다문화 이해를 돋는 세계시민교육도 펼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거석 출마예정자는 "전북에서 미래교육의 허브로 활용할 수 있는 적지가 바로 전라중 부지"라면서, "미친 전라중 부지가 포함된 전주 덕진권역이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된 만큼 학생들을 위한 미래 · 창의 · 문화 공간으로 활용한다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내년부터 2027년까지 총 6,323억 원을 들여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기존 전주종합경기장 공간에 '전통문화 메타버스 사업화 실증단지' 등을 조성해 첨단 디지털 문화콘텐츠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전북교육청이

내놓은 전라중 부지 활용 계획에 대해 "전라중 부지에 전주교육지원청 청사를 신축 이전한다는 계획은 교육계와 지역사회의 논의 과정조차 거치지 않은 행정편의적인 사고"라고 지적했다.

/장은성 기자

## KOICA 연구사업 공모 선정

전북대 문경연 교수팀, 케임브리지대학과 한국형 디지털 포용성연구



문경연 교수



박지연 교수



신보람 교수

정받았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를 대상으로 연구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및 중앙아시아포럼과의 협업을 통해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라는 점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연구책임자인 문경연 교수는 "더 나은 디지털 포용성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되는 이번 사업이 개도국의 사회문제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고 전했다.

/장은성기자

## 우석대-전남과학대 LINC+사업단 협약

우석대학교 LINC+사업단과 전남과학대학교 LINC+사업단이 4차 산업혁명과 연계된 산업체 맞춤형 수요를 기반으로 한 핵심인재 양성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지난 20일 전남과학대학교 본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이종석 우석대학교 LINC+사업단장과 여영일 생활체육과 개설위원장, 최용수 전남과학대학교 LINC+사업단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협력키로 했다.

이날 양 대학 사업단은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사회 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정보 공유와 산업체 맞춤형 수요를 위한 교육과정 개설 등을 대상 상호

하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전북체육회, 자체 특별감사 진행

전북체육회(회장 정강선)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체육 행정 서비스를 도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자체 특별감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예산의 투명성과 경영의 합리화, 운영 내실화 등을 달기 위한 것으로, 3명의 감사가 점검한다.

이번 특별감사는 전북체육회 2명의 감사를 비롯해 외부 전문가를

감사위원으로 위촉했다.

전북체육회 관계자는 "이번 자체 감사를 계기로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경각심을 높여 청렴도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또한 자정 능력을 높여 질 높은 체육행정서비스를 도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장은성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

